시장의 설계자로서의 국가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법정위원회와 정부연계기업

1960년대가 남긴 제도적 유산은 법정위원회(statutory board)와 정부연계기업(government-linked company)으로 이루어진 촘촘한 네트워크입니다. 국영 및 준국영 기업 대부분은 1968년부터 1972년 사이에 설립되었습니다. 스톨링가에 따르면 빈세미우스가 은퇴한 1983년 당시 정부연계기업은 505개에 달했고, 테마섹 홀딩스(Temasek Holdings), 셩리 홀딩스(Sheng-Li Holdings), MND 홀딩스(MND Holdings)라는 세 지주회사 아래 묶여 있었습니다. 그 범위는 조선소와 석유화학에서 해운, 항공, 부동산, 그리고 무역회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역회사의 예로는 EDB의 수출진흥센터를 인수하기 위해 1968년 11월 설립된 인트라코(Intraco)가 있습니다.[1]

정부는 민간 부문의 공백을 이유로 이러한 기업들을 정당화했습니다. 현지 기업가에게 자본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에서는 국가가 직접, 흔히 외국 파트너와 함께 투자했습니다. 리셴룽은 건국기의 공공부문을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며 한 몸처럼 움직이는 소수의 긴밀한 장관·관료 집단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런 조건에서 개발 사업을 감히 방해할 관료는 아주 대담하거나 아주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둔감한 사람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통치 원칙을 직설적으로 밝혔습니다. "자유방임의 교의와 달리 싱가포르에서 우호적인 기업 환경은 위축된 공무원 조직이 아니라 효율적인 공무원 조직에 달려 있다."[2]

제D편 제I장에서 살펴보는 1974년 테마섹 홀딩스 설립과 1981년 GIC 설립은 이 국가 자본에 항구적인 형태를 부여했습니다.[3] 다른 개발도상국의 국영기업과의 차이는 이들에게 부과된 규율에 있었습니다. 정부연계기업은 상업적 수익을 올리고 민간 기업과 경쟁해야 했으며, 많은 경우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해야 했습니다.

공장에서 금융센터로

제조업을 위해 개발된 방법은 훗날 금융에도 적용되었습니다. EDB가 재편된 1968년, 싱가포르는 역외 통화시장 육성에 나섰습니다. 비거주자 예금에 지급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를 폐지했고, 1968년 10월 최초의 아시아통화단위(Asian Currency Unit, ACU) 개설을 허용했습니다.[4] 이 면세 조치가 1968년 8월부터인지 1969년 입법부터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다르며, 이 문제는 이 편 제IV장에서 다룹니다. 그 방식은 제조업과 같습니다. 유치할 수 있는 국제 사업을 찾아내고, 장애물을 제거하며, 표적화된 세제 혜택을 제공한 뒤 나머지는 외국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입니다.

산업전략이 금융센터에 준 교훈

EDB 방식의 여러 특징은 금융센터의 운영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첫째는 작은 국가는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마케팅해야 한다는 확신입니다. 리셴룽은 기초 여건만 갖추면 투자자가 저절로 찾아올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다국적기업은 시간 압박 속에서 부분적인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므로, 유능한 기관이 사업을 싱가포르 쪽으로 끌어올 기회가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조정입니다. EDB는 다른 부처와 기관을 설득해 투자자의 걸림돌을 없애고, 사업이 결정에서 생산까지 몇 주 만에 진행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셋째는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외국 기업을 스승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들의 존재가 기술, 공급업체, 현지 경영인을 길러낼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넷째는 세제에서 교육훈련과 이민에 이르기까지 국가 정책을 투자자의 필요에 맞게 조정하려는 의지입니다.[5]

이러한 특징은 싱가포르 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자산관리 전략, 펀드와 패밀리오피스 인센티브를 다루는 장마다 다시 등장합니다. 이 편 제V장과 제E편에서 살펴보는 금융규제당국은 스위스 당국과 달리 감독과 산업 진흥을 결합하고 있습니다. 비판자들은 이 결합에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업계를 유치하려는 기관은 업계를 규율하는 데 주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E편 제VI장에서 논의하는 금융 건전성 관련 충격들은 바로 이 긴장을 시험합니다. 지지자들은 1968년의 아시아달러에서 2020년대의 가상자산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가 새로운 시장을 구축해 온 속도를 강조합니다.

EDB 자체도 서비스 분야로 영역을 넓혔습니다. 1985년 경기침체 이후인 1986년, EDB는 교역 가능한 18개 서비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서비스진흥국(Services Promotion Division)을 설치했습니다. 이 경기침체의 수치 역시 자료마다 다릅니다. 국가유산위원회(National Heritage Board) 자료는 독립 이후 첫 역성장인 1.7% 위축을 말하는 반면, 이후 수정된 국민계정은 0.6% 감소를 보여 줍니다.[6] 1991년까지 EDB는 유치 대상을 제조업에서 운영본부(operational headquarters)와 연구개발 같은 서비스로 넓혔습니다. 당시 싱가포르에는 700개가 넘는 국제 제조기업과 무역, 금융, 서비스 분야의 2,000개 기업이 추가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7] 1980년대의 본부 인센티브는 제E편 제III장에서 살펴보는 패밀리오피스 인센티브와 제G편 제I장에서 논의하는 글로벌 트레이더 프로그램(Global Trader Programme)의 논리를 선취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EDB

설립 후 65년이 지난 지금도 EDB는 싱가포르의 핵심 투자유치기관입니다. 14개국에 20개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1991년부터 투자 부문인 EDBI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EDB는 고정자산투자 142억 싱가포르달러와 총사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업지출 89억 싱가포르달러의 투자 약정을 확보했습니다. 이 약정이 5년에 걸쳐 실현되면 일자리 1만 5,700개와 연간 180억 싱가포르달러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8]

2025년에도 제조업은 명목 GDP의 18.5%를 차지해, 금융·보험업의 14.0%를 웃돌았습니다. 싱가포르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잔액은 2024년 말 3조 1,300억 싱가포르달러에 이르렀으며, 그중 7,790억 싱가포르달러가 미국에서 왔습니다.[9] 이처럼 금융센터는 1960년대의 전략이 만들어 낸 경제 안에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은행은 다국적기업에 자금을 대고, 펀드매니저는 이들에 투자하며, 변호사들은 이들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필라 2와 새로운 인센티브 수단

EDB의 가장 오래된 정책수단인 세금 감면 기간(tax holiday)은 글로벌 최저한세 아래에서 그 효력을 상당 부분 잃었습니다. 싱가포르의 2024년 다국적기업(최저한세)법(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은 최저세율을 15%로 정하고 국내 추가세(domestic top-up tax)를 도입합니다. 이 법은 직전 4개 연도 중 2개 연도에 연결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 그룹에 대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10] 실효세율을 15% 아래로 낮추는 파이어니어(pioneer) 세금 감면은 추가세를 통해 투자자의 몫을 싱가포르 국고로 옮기는 결과만 낳을 것입니다.

정부는 2024년 예산에서 환급형 투자세액공제(Refundable Investment Credit, RIC)로 대응했으며, 이 공제는 EDB와 엔터프라이즈 싱가포르(Enterprise Singapore)가 부여합니다. 기업은 각 적격 지출 항목에 대해 최대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공제액은 기업이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4년 이내에 현금으로 환급됩니다.[11] 수단은 새롭지만 방식은 1960년대의 것입니다. 기관과 협상하는 재량적 지원으로,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약정을 조건으로 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op. cit., 331면, *Parliamentary Debates, Official Report*, vol. 43, no. 1, 1983, cols 90–96 인용;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op. cit., 330–331면; Wikipedia, "1968 in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Intraco Ltd는 1968년 11월 5일 설립됨. ↩

2. Speech by BG Lee Hsien Loong, 1 August 1991, op. cit., 8면; Speech by BG Lee Hsien Loong, 1 August 1991, op. cit., 7면. ↩

3. Wikipedia, "Temasek Holdings"(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74년 6월 25일 회사법(Companies Act)에 따라 설립됨; Wikipedia, "GIC Private Limited"(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81년 5월 22일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으로 설립됨. ↩

4. F. Stoelinga, *Albert Winsemius*, op. cit., 330–331면 및 358면, Catherine R. Schenk, "The Dissolution of a Monetary Union: The Case of Malaysia and Singapore 1963–1974" (2013) 41 *Journal of Imperial and Commonwealth History* 496, 514–515면(비거주자 예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가 1968년 8월 폐지됨) 및 1968년 10월 Bank of America가 개설한 최초의 아시아통화단위에 관한 Katrijn de Ronde 인용. 제6회 국제조세회의(International Tax Conference) 연설, op. cit., 3면은 해당 입법을 1969년으로 봄. ↩

5. Speech by BG Lee Hsien Loong, 1 August 1991, op. cit., 3–5면: 자유시장론의 반론과, 다국적기업은 "have to decide on investment projects under time pressure and given only partial information"이라는 답변; EDB는 "has coordinated policy implementation by multiple departments and agencies"; "As a nation, we have consciously adjusted our policies, modified our attitudes, and trained our workers to match changing market needs." ↩

6. Roots.gov.sg, "Transforming Landscapes, Improving Lives", op. cit.: 교역 가능한 18개 서비스 부문을 담당하는 1986년 서비스진흥국; 1985년 1.7% 위축; Wikipedia, "Economy of Singapore", 데이터 표(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985년 실질 GDP 성장률 –0.6%.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7. Speech by BG Lee Hsien Loong, 1 August 1991, op. cit., 3면 및 9면: “It has broadened from promoting manufacturing to including service activities, such as operational Headquarters and R&D, among its targets”; “more than 700 international manufacturing companies, and 2,000 more in the trading, financial and services sectors”. ↩

8. Wikipedia, “Economic Development Board”(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EDBI는 1991년부터 EDB의 투자 부문 역할을 해 옴; “20 international offices in 14 countries”; Singapore Economic Development Board, 보도자료, “EDB continued to secure high value investment commitments in 2025 amidst a volatile global operating environment”, 2026년 2월 9일, paras 3 및 5: 고정자산투자(FAI) 142억 싱가포르달러, 그중 약 121억 싱가포르달러는 제조업 관련 사업; 총사업지출(TBE) 89억 싱가포르달러; 일자리 1만 5,700개; 부가가치 180억 싱가포르달러. ↩

9. Department of Statistics Singapore, 인포그래픽 “Singapore Economy”(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면: 2025년 경상 시장가격 기준 GDP, 제조업 18.5%, 금융·보험업 14.0%, 도매업 19.7%; 3면: “Stock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Singapore in 2024 Total S$3,130.4 Bil”, 미국 7,786억 싱가포르달러. ↩

10. Multinational Enterprise (Minimum Tax) Act 2024, ss. 7(“The minimum rate is 15%”), 8(1)–(2) 및 27–28, Singapore Statutes Online에서 lawplayer.com에 재수록된 것(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

11.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Refundable Investment Credit (RIC)”(iras.gov.sg, 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ompanies can receive up to 50% of support on each qualifying expenditure category”; 미사용 공제액은 “in cash within four years” 환급됨; 법적 근거는 1947년 소득세법(Income Tax Act 1947) s. 93B; EDB와 EnterpriseSG가 “Approving Authorities”임.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